2012학년도 신입학 수시 1차 모집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2조)

※ 본 논술문제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광운대학교에 있으며,
시험종료 후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학과(부)			
수 험 번 호		성 명	

※ 답안 작성시 유의 사항

■ 시험시간은 2시간(120분)입니다.

■ 답안지는 2장으로 작성하며, 2장의 답안지 모두에 모집단위, 성명, 수험번호를 컴퓨터용 싸인펜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은 검정색 볼펜으로 작성하십시오. (연필,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금지)

■ 답안지 정정 시에는 원고지 교정법을 따라야 합니다.

■ 답안지에는 제목을 쓰지 말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십시오.

[문제 1] 글 (마)의 밑줄친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은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글 (가), (나)를 참고하여 이에 대하여 설명하되, 글 (다)의 인도의 힌두화 사례와 글 (라)의 이븐 할둔의 문명론을 활용하여 논하시오. (50점, 700자±50)

(가)

19세기 조선은 왜 서양의 발달된 근대 문명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뒤쳐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선왕조를 통치한 성리학자들의 가치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1485년 『경국대전』의 완성 등을 통해 성리학에 기반을 둔 정치적·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자, 조선의 유학자들은 점차 유교질서의 사회적 정착과 일상적 실천을 구현하는 데 매진하기 시작한다. 성리학의 사회적 내면화가 진행되어가는 가운데, 중화질서의 문화적 중심을 지향하는 조선의 이른바 소중화(小中華) 의식이 성리학적 소양을 몸에 갖춘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게 된다. 중종 시대의 대표적 유학자인 조광조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조선의 유학자들이 '부국강병(富國强兵)'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 왕안석 같은 이는 학술이 정밀치 못하여 제왕의 대도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부국강병의 패술(覇術)을 본받고자 하였으니, 학자가 단순히 부국강병으로 계책을 삼는다면 이를 어찌 유자(儒者)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의 윤리적 승화'를 꿈꾸며 강렬한 문화적 자존의식을 견지하던 조선 유학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 부국강병이란 기본적으로 예치와 덕치에 의한 왕도(王道)정치에 대비되는 패도(覇道)정치에 가까운 개념으로서 가능하면 지양해야 할 가치이자 태도였던 것이다. 명나라가 망하고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중국 본토를 장악한 이후 조선 유학자들의 소중화 의식은 더욱 강해졌다. 조선 후기 조선이 중화문명의 유일한 정통임을 상징하는 만동묘(萬東廟)에 새겨진 글귀가 '비례부동(非禮不動,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 곧 예에 부합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이었던 것이나, 흥선대원군이 서양 함대와의 전투를 앞두고 최후까지 야만적인 서양 오랑캐들과 타협하지 말고 결사항전함으로써 '이곳에 예의가 있음'을 세계에 알리고자 한 것은 '유교 문명의 대표자'라는 당대 조선인들의 문화적 자긍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

동아시아의 근대로의 전환기인 19세기 후반 한·중·일 삼국에 핵심 화두로 등장한 '문명개화'와 '자주독립국가 건설'은 구미 열강이 주도하는 근대 국제질서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상한 일종의 '시대정신'이었다. 메이지기(明治期) 일본의 선구적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일찍이 간파하고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아시아의 '나쁜 친구들(惡友)'과의 관계를 끊고 서둘러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탈아론(脫亞論)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그의 통찰력은 이후 '부국'과 '강병'으로 지나치게 경도되면서 일본을 침략적인 제국으로 질주하게 만드는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음 면 계속>

> 화친조약이나 만국공법은 대단히 우아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오직 명목상 그런 것이며, 국가간 교제의 실제는 권위를 다투고 이익을 탐하는 것에 불과하다. (……) 백 권의 만국공법은 여러 대의 대포만 못한 것이며, 여러 화친조약은 한 상자의 탄약만 못한 것이다. 대포와 탄약은 있을 수 있는 도리를 주장하는 준비가 아니라 없는 도리를 만들어내는 기계이다. 각국 교제의 도(道)는 죽느냐 죽이느냐에 있을 뿐이다.

서구 열강으로 대표되는 근대적인 힘에 대한 추구는 개화기 조선의 지식인들에게서도 나타난다. 윤치호는 미국 유학 시절(1888년 11월~1893년 10월) 자신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하나의 민족이 스스로 통치할 능력이 없을 때,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더 개화되고 더 강한 인민에게 통치받고, 보호받으며 가르침을 받는 것이 더 좋다.
>
> 인종 전체의 궁극적인 향상이 하나님의 섭리가 지향하는 목표이다. 강한 인종이 약한 인종을 자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가운데 범하는 모든 어리석은 행위와 범죄는 인간의 본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큰일을 하는데 불가피한 필요악으로 보아야 한다.

근대 문명의 힘에 대한 선망과 공포 사이에서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지배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윤치호의 글에서 우리는 좌절한 조선 지식인의 철저한 자기 부정과 힘의 논리에 대한 강한 긍정을 읽을 수 있다. 이것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어 일기마저 영어로 썼던 윤치호라는 예외적 개인에게서만 나타나는 사고방식이 아니다. 근대 민족주의 사학의 선구자가 된 신채호와 박은식이 공통적으로 유교를 '망국(亡國)의 주범'으로 지목한 것도 부강한 근대 민족국가 건설에 대한 열망과 무관하지 않다. '예의지방(禮義之邦)'을 지향하던 조선 사대부 의식은 '사대주의(事大主義)'로 평하되거나 '노예적 사상'으로 간주되었고, 이른바 '문약(文弱)'은 개혁되어야 할 낡은 전통으로 치부되었다.

이처럼 19세기 동아시아의 문명사적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에서 형성된 자기 전통에 대한 부정과 우승열패(優勝劣敗)의 세계관은 20세기 한국 사회가 경험한 식민화와 전쟁이라는 민족사적 수난, 남북분단과 경제성장이라는 처절한 생존의 연대기를 거치면서 한국인들이 압축적으로 근대를 살아오는 동안 유령처럼 한반도를 배회하게 되었다.

(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인도의 주요한 유적들은 거의 모두 영제국의 지배를 받던 19세기에 발견된 것들이다. 아잔타 석굴, 카주라호 힌두사원, 산치와 사르나스의 불탑, 아소카 석주 등 오랫동안 정글 속에 버려진 채 잠들어 있던 유적들은 영국인들에 의해 인도의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재발견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전반 영국인들의 눈에 비친 인도는 과거에는 찬란한 문명을 지녔으나 오늘날에는 퇴색하고 정체(停滯)되어 우상 숭배와 미신과 수많은 악습의 나락에 빠진 구제불능의 나라에 불과했다. 유럽인들은 '유럽 도서관에 있는 한 서가의 책이 인도와 아랍에 존재하는 모든 문학을 합친 것보다 더 훌륭하다'는 오만한 태도로, 영어를 배우고 유럽 문명을 본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인도인들에게 '검은 원숭이'라는 경멸을 퍼부었다.

<다음 면 계속>

현대 인도인의 자기 정체성은 바로 이러한 19세기 영제국으로 대표되는 유럽 근대 문명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었다. 새로 발견된 인도의 주인은 무슬림이나 기독교인처럼 분명하게 구획될 수 있는 '힌두(Hindu)'였다. 애초에 '힌두'라는 정의는 실제로는 다종다양한 수천 개의 종파로 나뉘어서 존재하는 집단들을 하나의 범주로 뭉뚱그린 편의적 발상의 산물이었다. 그것은 나약하고 수동적인 인도의 이미지에 대한 반동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하나로 통일만 된다면 무슬림이나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수적으로 우세하고 강한 힘을 가진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인도인들의 상상과 희망의 소산이었다. 역사가들은 광대한 인도가 소수의 영국인에게 쉽사리 나라를 넘겨준 원인을 '분열' 때문이라고 적지 않았던가! 강한 인도를 위해서는 통일된 힌두, 곧 하나로 통합된 국민적 정체성이 필요했다. 이제 인도 인구의 약 80퍼센트를 차지하는 대집단으로 규정된 힌두는 삶의 의미와 방식이 전혀 다른 무수한 사람들을 하나로 끌어안는 단어가 된 것이다.

힌두교가 기독교처럼 강하고 남성적인 종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교리의 통일성을 강조해야 했기에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베다의 전통을 따르는 브라만들의 철학적인 믿음이 그 중심을 형성하게 되었다. 사실 브라만은 총 인구의 5퍼센트도 되지 않는 소수 계층이었고 그나마 각 지방에 거주하는 모든 브라만을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도 없었다. 단지 그들은 산스크리트어를 이해하고 그 언어로 쓰인 힌두교의 성서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공유했을 뿐이다. 그러나 지역문화의 이질성과 전통의 다양성을 초월한 힌두교의 통일성에 대한 강조는, 여러 지역간의 거리감과 분리의식을 줄여서 힌두의 전국적인 일체감 형성과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힌디(언어)와 힌두(국민) 그리고 힌두스탄(영토)으로 연결된 '인도'는 영제국이 아무 것이나 써넣을 수 있는 빈 칠판이 아니라 수억 명의 인구와 수천 년의 역사를 소유한 거대한 국민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식민주의가 종결된 후에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인 식민지인들이 과거의 진정한 자아를 되찾은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의미에서 인도인들에게 독립은 정치적·경제적 지배와 착취로부터의 해방일 뿐 식민적 정신의 해방은 아니었다. 현대 인도는 동양과 서양, 고대와 근대, 이성과 감성이 뒤섞인 식민주의의 혼종으로 재탄생하였다. 인도는 여전히 '영원히 변치 않는 동양의 신비'를 간직한 땅이지만, 동시에 '거대한 영토와 인구를 보유한 강대국'임을 국제사회에 입증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1998년의 핵 실험은 이러한 인도의 야누스적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제 인도는 서양 강대국들의 전유물인 핵을 보유한 세계 군사강국이 된 것이다.

(라)

농경민이 호전적인 유목민에 대해 가졌던 공포는 더러운 외모와 기이한 풍습에 대한 멸시의 감정과 뒤섞여 있었다. 일례로 고대 중국인들의 주변세계의 지리와 종족에 대한 통속적이며 설화적인 이해방식을 잘 보여주는 책인 『산해경(山海經)』을 보면, 기이한 형상을 한 갖가지 종족들이 소개되어 있다. 그 가운데에는 어깨가 없는 족속이 사는 무견지국, 외눈박이들이 사는 일목국, 손발이 하나씩밖에 없는 유리국, 귀가 너무 길어서 두 손으로 받쳐들고 사는 섭이국, 개처럼 생긴 사람의 나라인 견융국 등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기괴한 형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다음 면 계속>

유목민들이 이처럼 오만과 편견에 가득 찬 농경민들의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그들은 자신의 생활양식에 대해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며 정주세계가 갖는 악의성과 그 해악을 경계하였다. 8세기에 쓰여진 돌궐 비문은 중국인들이 '달콤한 말'과 '부드러운 재물'로 유목민을 유인한 뒤 '사악한 지혜'를 생각해내어 그들을 파멸시켰다고 비난하였다. 몽고인들은 처음에 북중국을 점령했을 때 정주세계의 풍요로움을 즐기기는커녕 황하 이북의 평원을 완전히 초지로 만들어 가축을 키우려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 아마 그들은 토지에 긴박되어 거기서 나는 곡식을 먹고 사는 농민들이야말로 가축과 다름없는 부자유한 노예 같은 존재이며, 자신들이야말로 토지에 얽매이지 않고 넓은 초원을 이동하며 자연의 풍요로움을 마음껏 즐기는 축복받은 자유인이라고 자부했을지도 모른다.

유라시아 대륙의 유구한 역사에서 '농경민'과 '유목민'이라는 이질적인 두 집단은 역사를 움직여온 수레의 두 바퀴였다고 할 수 있다. '문명'을 자부하던 농경민과 그들에 의해 '야만'의 낙인을 받은 유목민 사이에 격렬하고 지속적인 접촉이 일어났을 때 양자는 좋든 싫든 서로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음을 과거의 역사는 웅변으로 입증하고 있다.

일찍이 북아프리카의 아랍 역사가인 이븐 할둔(1332~1406)은 '문명'과 '야만'의 구분 기준이 일차적으로 경제적 생활방식의 차이에 있다고 보고 그것이 양자의 공동체적인 여러 특징을 결정짓는다고 파악했다. 그에게는 '야만'이 원시적인 농경이나 목축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는 집단이라면, '문명'은 성벽과 도시를 갖고 그 안에서 문화생활을 누리는 도시민을 의미하였다. 이븐 할둔은 '야만'에게는 '문명'이 소유하지 못한 '집단적 결속력'이라는 덕목이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친족적인 일체감이나 상호간의 신뢰에 바탕을 둔 의존, 동일한 종교의 수용 등을 통해 형성되는데, 권위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면 공동체의 성원들을 결집시켜 도시를 정복하고 국가를 건설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이들이 국가를 건설한 뒤 생활이 안정되고 도시문화가 가져다주는 사치와 향락에 젖으면서 서서히 결속력은 약화되고, 그러면 보다 강한 결속력을 지닌 또 다른 '야만'에 의해 정복된다. 도시의 '문명'은 그 자체로서는 국가를 건설하고 유지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븐 할둔의 이러한 문명론은 이탈리아의 역사철학자 비코의 순환론적 역사관을 연상시킨다. 그는 '문명'과 '야만'에 대해 본질적인 우열이나 도덕적인 성패에 따른 가치 판단을 부여하지 않고, 양자의 문화적 차이와 역사적 상호 작용을 통해 인류사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마)

과연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에 걸맞는 충분한 문화적 관용성과 바람직한 차이의 윤리학을 갖추고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의 문화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열등감과 무분별한 모방의 태도를 드러내는가 하면,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후진국 문화에 대해서는 OECD에 가입한 '졸부'로서의 우월의식을 거침없이 표출한다. 제3세계 국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기업 이익만을 내세워 현지인들의 관습과 문화를 무시하는 태도나 국내에 취업한 힘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는 우리 사회의 불관용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차별에 대하여 민족적 격분을 느꼈던 것이 바로 엊그제 일인데, 이제는 우리가 외국인에 대하여 바로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과 외국문화에 대한 현대 한국인들의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그 역사적 연원을 추적해보면, 한국인들이 근대화 과정에서 매우 급격한 문명사적 전환을 경험하였으며, 이로 인해 한국인들의 내면세계에 복잡하게 뒤틀린 민족적 자의식이 형성되어왔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 면 계속>

우리의 내면에는 한편으로는 외세에 의한 침략과 압제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자기비하와 열등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성취감에서 비롯된 자부심과 우월의식이 복잡하게 교차되어 있다. 지난 세기 우리 사회는 사상 초유의 압축적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역사적 과거를 망각한 채 숨돌릴 틈 없는 격변과 성장의 시간대를 살아온 것이다. 불과 반 세기만에 극동의 극빈국에서 글로벌 '강소국'으로의 환골탈태에 성공한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한번쯤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하여 자문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근대화와 서구화로의 질주가 시작되기 이전, 100년 전, 200년 전 혹은 그보다 더 이전에 우리는 과연 누구였던가?

[문제 2] (가)와 (나)를 참고하여, 회사 A의 입장에서 (다)와 (라) 각각의 시장 상황이 어떤 가격 정책으로 균형 상태가 되는지 설명하시오. 또한 (다)와 (라) 시장에서 회사 A와 B가 담합이 가능하다면, (다)와 (라) 두 시장 상황 가운데 어느 경쟁 환경이 회사 A의 입장에서 더 좋은지 설명하시오. (50점, 700자±50)

※ 담합 : 기업들이 가격과 수량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행위

(가)

게임은 주어진 상황에서 다른 경기자가 현재 전략을 고수한다는 가정 하에 내가 현재의 전략을 다른 전략으로 바꿀 유인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만일 경기자들 중 누군가에게 현재의 전략을 버리고 다른 전략을 취함으로써 자신의 보수를 높일 수 있다면, 현재의 상황은 불안정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어느 누구도 현재 전략으로부터 이탈할 유인이 없다면 이들 전략의 결과인 현재 상황은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띨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의 상황에서 어느 경기자도 이탈할 유인이 없는 안정적 상태 혹은 전략 조합을 '균형(Equilibrium)'이라고 부른다.

(나)

예를 들어, 다음의 의사결정 과정을 생각해보자. 두 맥주회사 갑과 을이 있다. 각 회사는 TV 광고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결정해야 한다. 즉, 각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으로는 TV 광고를 자제하는 '광고 자제' 전략, TV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는 '광고 공세' 전략 두 가지가 있다. 두 회사가 모두 광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 회사는 50억 원의 순이익을 올린다. 한 회사가 맥주 광고를 하는데 다른 회사가 하지 않을 경우, 광고를 한 회사의 매출액은 70억 원으로 증가하지만, 이 가운데 광고비로 10억 원을 지출하므로 결국 60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게 된다. 반면, 광고를 하지 않은 회사의 매출은 대폭 감소하여 20억 원의 순이익만 올릴 수 있다. 두 회사가 모두 경쟁적으로 TV 광고를 할 경우, 상대방 회사에 비해 판매를 더 늘릴 수는 없는 반면 막대한 광고비를 지출해야 하므로 각자의 순이익은 30억 원에 머물게 된다. 개별 회사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 결과로 채택된 경쟁적 균형에서의 순이익은 각각 30억 원으로 두 회사 모두에게 이상적인 상태에서의 순이익인 50억 원보다 줄어들게 된다.

<다음 면 계속>

(다)

회사 A와 B는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을 하고 있다. 각 회사는 아래와 같은 두 종류의 가격 정책을 선택할 수 있고, 각 회사의 가격 정책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음과 같다. (단, 가격 정책 이외의 다른 경쟁 요소는 없다고 가정한다.)

<표 1> 회사 A와 B의 가격 정책에 따른 이익 (단위: 없음)

구분		회사 B	
		정책 1	정책 2
회사 A	정책 1	(100, 100)	(75, 120)
	정책 2	(120, 75)	(80, 80)

*주: 각 셀에서 첫 번째 수는 회사 A의 이익을, 두 번째 수는 회사 B의 이익을 의미함.

(라)

(다)의 시장에 새로운 회사 C가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하여 소비 시장을 확대하고, 시장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 회사 C와 같이 경쟁을 주도하는 회사를 흔히 선도자(Leader)라고 하고, 이에 맞춰 행동하는 회사들을 추종자(Follower)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쟁 상황에서는 선도자가 먼저 의사결정을 내리고, 추종자는 그 결정을 바탕으로 자신의 전략을 선택하여 균형 상태에 이르게 된다. 회사 C가 가격 정책을 선택함에 따라 세 회사들의 이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

<표 2> 회사 A, B, C의 가격 정책에 따른 이익 (단위: 없음)

가격 정책			이익		
회사 A	회사 B	회사 C	회사 A	회사 B	회사 C
정책 1	정책 1	정책 1	98	98	125
정책 1	정책 1	정책 2	95	95	150
정책 1	정책 2	정책 1	70	115	120
정책 1	정책 2	정책 2	65	110	155
정책 2	정책 1	정책 1	115	70	125
정책 2	정책 1	정책 2	110	65	155
정책 2	정책 2	정책 1	95	95	120
정책 2	정책 2	정책 2	90	90	155

<끝>

논술고사 인문계 2조 모범답안

[문제 1] 모범 답안

자문화에 대한 우월감과 열등감이 뒤섞인 현대 한국인들의 이중적인 문화적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 해답은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한국사회가 경험한 문명사적 패러다임의 전환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전통시대 조선왕조는 예치와 덕치를 숭상하는 소중화 의식을 갖고 있어 부국강병과 같은 패도정치 사상은 배척했다. 이는 개항기 서구 문명 수용의 지체를 낳았고, 결국 메이지기 급격한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에 의해 국권을 강탈당하고 말았다. 식민화와 전쟁이라는 민족의 수난사를 겪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승열패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면서 전면적인 근대화와 서구화를 추구하게 되었고 이는 유교와 같은 전통문화에 대한 철저한 단절과 자기부정으로 나타났다. 급속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우리는 서구 선진국 문화에 대한 열등감을 드러내면서도 후진국 문화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이중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와 유사한 식민지 경험을 가진 인도의 힌두화 사례는 전통과의 철저한 단절이나 망각보다는 전통의 재발견을 통해 혼성적 성격을 띤 야누스적 정체성을 형성해왔음을 보여준다. 농경민과 유목민의 문화적 상호작용을 분석한 이븐 할둔의 문명론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문화에 대하여 섣불리 우열을 가리거나 도덕적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글로벌 시대 다문화사회에 걸맞는 문화적 관용성과 차이의 윤리학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통문화는 물론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738자)**

[문제 2] 모범 답안

(가)는 게임 상황의 균형 상태를, (나)는 (가)의 일례로 두 맥주회사의 광고 전략이 어떻게 경쟁적 균형에 도달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가)와 (나)를 참고하여 (다)의 상황을 보자. B회사가 먼저 정책을 선택할 경우, B회사가 정책 1을 선택하면 A회사는 이익이 120이 되는 정책 2를 선택할 것이다. B회사가 정책 2를 선택하면 A회사는 이번에도 이익이 80이 되는 정책 2를 선택할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정책 2가 이익이 크기 때문에 A회사는 정책 2를 선택한다. A회사가 먼저 정책을 선택하는 경우라도, 같은 논리로 B회사는 정책 2를 선택하게 되므로, 회사 A와 B는 이익이 80, 80인 정책 2에서 이탈할 유인이 없는 균형상태가 된다.

(라)의 상황은 선도회사인 C회사가 이익 극대화를 위해 먼저 정책 2를 선택하게 된다. 이후 시장 상황은 회사 A와 B가 경쟁하며 가격을 결정하는 (다)의 시장과 같게 되고, 같은 논리로 두 회사는 정책 2를 선택할 것이다. 결국 세 회사는 이익이 90, 90, 155가 되는 정책 2를 선택하여 균형상태를 이루게 된다.

담합의 경우를 보자. (다)의 시장에서 회사 A와 B가 담합이 가능하다면, 두 회사는 이익이 80인 정책 2에서 이익이 100이 되는 정책 1로 변경할 것이다. (라)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익이 90이 되는 정책 2에서 이익이 95가 되는 정책 1로 변경할 것이다. 따라서 A회사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익이 큰 (다)시장을 선호한다. **(737자)**

광운대학교